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명품 주거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담아낸다

현대건설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광고 카피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힐스테이트는 벌써부터 유명세를 떨칠 기세다. 진정한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힐스테이트의 매력과 깊은 의미를 새겨보고 브랜드 네이밍과 광고 촬영 현장을 스케치했다. 에디터 | 김소진 · 자료 제공 | 현대건설 홍보팀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더 좋아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역사, 열정, 사람, 명예... 당신의 가치는 H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를 담은 현대 아파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세요. 상상하라 H'. 현대건설의 새로운 아파트 광고 카피다.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초창기 건설사 이름을 붙인 '현대아파트'에서 '현대홈타운'으로 바뀌었다. 2000년 '현대홈타운' 런칭 이후 브랜드 PR 광고비를 거의 투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도 현대건설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매년 10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들과 구별되고, 현대건설만의 명성과 자부심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창조해 내야 했다. 최고의 브랜드를 탄생시키기 위해 마치 와인과도 같은 숙성 작업이 필요했다.

자부심과 정통이 느껴지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결국 품격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고급 주거단

지라는 뜻의 'HILL' 과 높을 지위와 품격을 뜻하는 STATE가 합쳐져 힐스테이트(HILLSTATE)가 탄생했다. 힐스테이트의 콘셉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를 더해가는 집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다. 최고를 위한 최고의 아파트로 고객가치 창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감성 중심의 주거공간을 표방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힐스테이트의 'H'는 '현대아파트'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새로운 브랜드와 연계시키는 중요한 단어다. 'HILL'은 남들보다 격이 높은 곳, 더 좋은 곳, 자랑할 만한 곳을 의미하며, 단순히 언덕이나 자연을 의미하는 Hill이 아닌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주택단지를 뜻한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한 물리적 메타포(Metaphor)인 것이다.

로고의 서체는 조형성이 뛰어난 스크립체를 사용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현대건설 아파트의 제2의 부흥을 이뤄 내고 고품격 아파트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HILLSTATE'의 메인 색상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는 와인에서 착안해 적포도주색을 사용했다.



‘역사·열정·사람·명예’, 이 모든 것을 담은 아파트

힐스테이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모델로 고소영, 임권택, 유순신, 최인호, 윤도현을 선택했다. 이들 4명의 모델들은 각자의 이미지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CF 촬영을 했다. 2006년 9월 18일 오후 4시, 삼성동 누드스튜디오에서 영화배우 고소영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스티프들과 함께 촬영을 했다. 목동 문화컨텐츠센터에서는 가수 윤도현이 청남방을 걸쳐 입고 밴드 연주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담기 위해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었다. 드디어 그의 새 노래 ‘Heaven’s Bus’가 절정에 다다른 무렵 열정적인 표정과 포즈를 카메라에 담았다. 파주 이채 시너스에서는 한국 영화의 산증인 임권택 감독이 홍상수 감독의 ‘해변의 여인’ 영화를 보면서 촬영에 임했다. 헤드헌터 유순신은 파주의 푸른숲 출판사에서, 한국 소설계의 거장 최인호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 숲길을 산책하면서 촬영을 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의 메인 모델 고소영과 명사 모델 임권택, 최인호, 유순신, 윤도현은 2006년 9월 18일 밤 10시, 삼성동 누드스튜디오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각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가족사진을 찍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H’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들은 명예로운 전당에 살고 있는 힐스테이트 패밀리와 같다. 각 분야의 대가(大家)들이 현대건설의 얼굴이 된 셈이다.

영화배우 고소영에게 ‘H’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녀는 “휴머니즘이 좋은데요?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것이 가장 좋잖아요”라는 답변을 했다. 영화감독 임권택에게 ‘H’라는 단어하면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는지 물었다. 그는 생각에 잠기더니 ‘History’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한국 건설산업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인 만큼 이에 걸 맞는 아파트 이미지를 전달해야죠”라고 했다.

윤도현에게 ‘H’는 ‘Hotness’다. 열정적인 로커에게 잘 어울리는 카피다. 그리고 유순신에게 ‘H’는 ‘Human’.“회사에서 인재를 중요시 여기듯, ‘집’도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H’하면 Human이 떠오르네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최인호에게는 ‘H’는 ‘Honor’라고 한다. “H라는 단어를 찾아 보니 Human, Health 등 많이 있더라고요. Honor는 현대건설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명예’라는 것이 얻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운 건데, 현대건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가치를 잘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Honor’는 아주 좋은 화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집’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역사와 문화가 되는 아파트, 품격과 교양을 갖춘 특별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주거의 명품이 아닐까. 그만한 가치를 지니는 힐스테이트가 지금 주거 문화의 중심에서 있다. ☺

